

사진기자의 땅짓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우리 설명절 체험'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술 한 잔 나누고 화투도 치고, 또 이야기꽃을 피울 그날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그럴까요. '다른 나라 명절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것 같네요.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봅시다. 주변에서 부모님 선물 사고향 간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와야겠다고 은근히 자랑하는데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TV만 시청하는 외국인, 이력만리 두고 온 고향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가 있다

길래 다녀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가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각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 명절 민속 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했더군요. 갔더니, 300여 명의 낯설어 보이는 외국인들이 한데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운 야외에서 어찌나 즐거워하든지 보는 사람도 흥에 겨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고국 땅 떠나온 설을 조금이나마 덜 느꼈으면 합니다. 그들을 돕는 것, 함께 사는 우리들이 나서야 할 일인 것 같네요.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이렇게도 실을 수 있나?!

■여태 안갔어요?

택수업을 기르던 남편이 면도한 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부인이 누워 있는 잠자리로 들었다.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남편 턱을 만져본 부인, 나즈막히 말했다. "여태 안가고 있었어요?"

■이상한 수수께끼 돈을 받은 만큼 몸을 허락하는 것은, 공중전화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은, 비랍난 사람 현대판 빈부차는, 맨손이나, 맨손이나, 노처녀와 노총각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동성동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빈소는, 전부대

뉴스퀴즈 49·50회 1등에 장계수씨

광주일보가 실시한 49·50회 뉴스 퀴즈 추적 결과, 장계수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장씨는 12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사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49·50회 뉴스 퀴즈에는 업서와 편지로 302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김재남 경사와 백금열 경장이 임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장계수·광주시 서구 유촌동 2등 ▲강재희·여주시 여서동

뉴스퀴즈

51. 한류 스타를 위협, 일본 공연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서방파 옛 두목 김태춘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측은 "김태춘씨가 수차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권세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 한류 스타를 격려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요. ①관상우 ②배용준 ③시원 ④이병헌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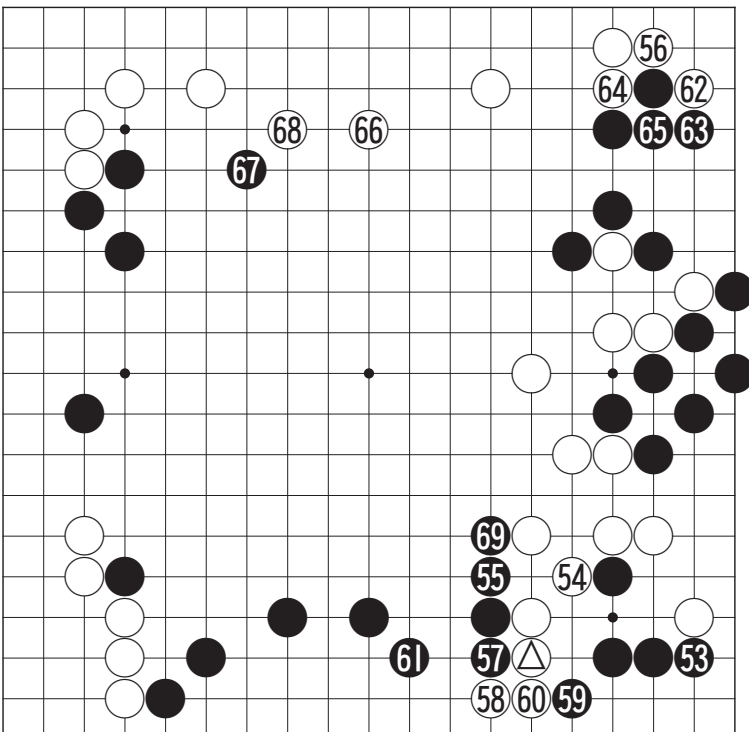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박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2월 26일 戊寅)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3회 광주 교육감배 바둑대회 중등부 결승전. 백 윤용희 (비야중 1) vs 흑 권재구 (문성중 1). 안조영 원익배 십단전 우승. 안조영 9단이 지난 1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 3번기 제3국에서 백용석 5단을 17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종합 전적 2승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안 9단은 중반 중앙에서 선수를 잡고 집을 벌어들여 승부를 결정지었다. 비세를 느낀 백 5단은 후 157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불발로 끝나자 돌을 거두었다. 안 9단은 그동안 최고위전과 패왕전, 명인전에서 준우승에 그쳤으나, 본격 기전에서 처음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안조영, 원익배 십단전 우승. 안조영 9단이 지난 11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 3번기 제3국에서 백용석 5단을 17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종합 전적 2승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안 9단은 중반 중앙에서 선수를 잡고 집을 벌어들여 승부를 결정지었다. 비세를 느낀 백 5단은 후 157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불발로 끝나자 돌을 거두었다. 안 9단은 그동안 최고위전과 패왕전, 명인전에서 준우승에 그쳤으나, 본격 기전에서 처음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I can't stand it), Japanese (風邪(かぜ)を引(ひ)いたんですか?), Chinese (你以前来过吗?), and Korean (一舉兩得(일거양득)). Each column includes a lesson title, a question, multiple-choice answers, and a short explanation or translation.